

# 대구주노

부활 제3주일  
2012.4.22.(나해) 제1778호



## 금주의 성화

| 엠마우스 <1601년 카라바조 작, 캔버스에 유화. 영국 국립미술관 소장>

예수님과 하루 종일 같이 걸으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때에 빵을 떼시어 그들에게 나누어주시는 순간 눈이 열려 비로소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 손으로 빵에 강복하고 계시다. 깜짝 놀란 두 제자의 표정과 동작이 매우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부활의 날인 여드레째 날, 곧 주일에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제자들은 그 때나 지금이나 빵을 떼어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난다.

## † 오늘의 전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루카 24,35-48 참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풀이해 주시며,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날에 모여 말씀을 듣고 빵을 나누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파견됩니다.

제1독서 사도 3,13-15,17-19

제2독서 1요한 2,1-5ㄱ

복음 루카 24,35-48

화답송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또는 ◎ 알렐루야.)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4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먼저 인사합니다.

# 본당, 빠로키아

박용욱 미카엘 신부 | 이동성당 주임



**1** 스승이신 예수께서는 떠돌이였다. 방랑벽이 있어서도 아니요, 거릿귀신이 들어서도 아니다. 애초부터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찾아가셨다. 말 그대로 종횡무진, 신출귀몰, 머리 누일 곳도 없이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혼인 잔치에 가서 흥을 돋워주시고, 아들을 잃은 과부와 오빠를 여윈 누이의 눈물 젖은 상갓집에 나타나셔서 재회의 기쁨을 안겨 주기도 하셨다. 어두운 밤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가 하면 아침부터 제자들과 생선을 잡수시기도 했다. 그분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픈 이를 고치며 마귀 들린 이에게 제정신을 찾아주시러 사방팔방을 다니셨다. 공생활 내내 돌아다니시던 분이셨으니, 죽었다가 깨어나서도 생전의 그 버릇 버릴 리가 만무하다. 성전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넙죽넙죽 예물을 받아 드시는 하느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둘이나 셋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면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말씀을 건네신다.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신다. 지친 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우는 이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두려움에 숨어 있는 이들과 더불어 뱃속을 채우시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신다. 오늘 복음처럼.

**2** 예수 그리스도의 이토록 탁월한 기동력을 감안하면, 한 자리에 놀러만 있어서는 결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 엉덩이 붙이고 퍼져 있을 수가 없다. 발 벗고 달려가도 따라가지 못할 지경인데! 그래서 예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떠돌이 생활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세상을 떠다니는 순례객, 천상 그렇게 살 팔자임을 받아들였다. 오죽하면 한자리에 모여 머물면서도 그곳을 ‘빠로키아’라고 불렀다. 오늘날 ‘본당’을 뜻하는 라틴어 빠로키아는 희랍말 파로이키아(παροικία)에서 왔다. 파로이키아는 원래 놀러 사는 곳이 아니다. 멀리 돌아다니다가 잠시 들러서 기력을 회복하는 곳이다. 사막 속의 오아시스요 고된 노동현장의 함바집이다. 이를테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곳이다. 기름을 채우고 기력을 찾았으면 다시 갈 길을 가야한다. 빠로키아, 본당은 그런 곳이다. 주일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힘을 되찾아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힘차게 나가야 한다.

**3** 지난 몇 해 동안, 스승을 따라 곳곳으로 파고 들어간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모습을 생각한다. 가난한 이의 눈물과 한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밀어붙이고’ ‘몰아붙이는’ 토건 개발의 현장에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려 묵묵히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던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생각한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가난과 싸우고 장애와 싸우는 곳에서 묵주를 방패삼아 버티어 내던 교우들을 생각한다.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스승 그리스도의 모습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희망과 신뢰의 참뜻을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도 그런 희망과 신뢰를 갈구하는 눈동자가 있고 목소리가 있다. 스승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라 나서서 그 시선과 목소리에 답해주라고 말씀하신다. 본당, 빠로키아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는 자리여야 한다. 종교개혁의 날

## 김수환 추기경을 살린 어머니의 기도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은 일제 때 신학생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어쩔 수 없이 학병으로 끌려가, 오키나와의 이름 모를 섬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1946년 말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니 돈도 없고 배도 무척 고팠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구걸을 하기도 그렇고 무작정 가까운 범일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성당 사제관 문을 두드렸더니 교리공부를 하고 있던 한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김수환 신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와~ 김 신부님 동생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범일성당에 김수환 신학생의 형님인 김동한 신부님이 계셨고, 형제가 너무나 닮았기에 아이들은 금방 김수환 신학생을 알아본 것입니다. 김수환 신학생은 며칠 동안 굶은 채로 부산 항에 내렸는데, 참으로 기묘하게도 형님을 만나 밥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어머니 품에 안겼지만 그때는 아들이 어머니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다음날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네는 어머니 덕에 살아왔네,” “어머니 기도 덕에 살아왔네.”라며 말해주었습니다. 김수환 신학생의 어머니 서중하 마르티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모당에 나가 당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후에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나긴 기도가 없었다면 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사제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느낄 때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가톨릭뉴스



김수환 신부와 어머니 서중하 마르티나  
서품 직후 계산주교좌성당에서



### Q. 부활초에 왜 향을 드리나요?

A. 향은 신자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 공경을 뜻하고, 또 하느님께 드릴 제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대와 독서집은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사물이므로 향을 드리는데, 부활시기에는 부활초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향을 드립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나 미사에 참례하는 회중, 그리고 제병과 포도주는 모두 주님께 바치는 제물이므로 향을 칩니다.

#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계속 하기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 주일 말씀

### 그리스도의 증인

1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당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불렀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 말씀과 교리

### 복음화(福音化, Evangelization)

‘선교’(宣敎, Mission)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민족이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설하는 활동, 즉 비(非)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는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선교교령 6항). 이와는 달리 ‘사목’(司牧, Pastoral Ministry)은 이미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돌보는 활동을 말합니다. 한편 ‘복음화’는 복음 선포뿐 아니라 교회의 사명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선교와 사목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복음적 생활’(에페 4:23-24, 골로 3:9-10)로 인도하는 교회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문화의 깊은 근원에까지 생명력 있게 복음화하는 것입니다(현대의 복음선교 17-20항).

복음화를 위해서는 말씀의 선포와 생활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10,14)라는 성경 말씀처럼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할 복음

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과 형제애, 죄와 악, 기도, 희생, 선행의 추구 등이 말씀 선포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화에 있어서 말씀의 선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복음적 생활의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가 하느님의 사랑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말씀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의 실천, 생활의 증거는 복음화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이 먼저 복음화 되면서 복음화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말씀과 성사

### 복음화와 성사생활

말씀과 생활의 증거로 신앙에 귀의(歸依)시킨 다음에는 성사를 통하여 초자연적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 생명이 더 풍부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해설하는 말씀의 선포를 복음화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성사로 말미암은 내적 변화와 새 생활은 그 도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사생활, 특히 성체성사의 생활화는 복음화의 정점을 이룹니다.(가톨릭대사전, ‘복음화’항) 가톨릭대사전

## 묵상해 봅시다.

- 복음화란 무엇일까요?
- 나, 가정, 본당은 얼마나 복음화 되었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세례성사

## 성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려고 성사(聖事)를 제정하셨습니다. 세례, 견진, 고해, 성체, 병자, 성품, 혼인의 일곱 가지 성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표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의 표지들은 그저 상징일 뿐이지만 주님께서 직접 정하신 이 예절들은 그 예절에 참여하는 이에게 실제로 은총을 전달합니다. 성사를 배령하면 생명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보존하는 도움의 은총도 받습니다. 성사의 예절은 말씀과 행동으로 구성됩니다.

## 세례성사

세례성사는 물로 씻는 예절과,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사든지 주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 성사를 받음으로써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다른 여섯 가지 성사를 배령할 자격을 얻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세례 받는 사람에게 임하시어 원죄와 본죄, 또 그 벌까지 완전히 없애 주시고 생

명의 은총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합니다(마르 16,16). 성령께서는 또한 세례 받는 사람에게 향주삼덕, 곧 믿음, 희망, 사랑의 덕행을 주십니다.

세례성사는 정식으로는 성직자가 주례합니다. 그러나 위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교회의 뜻대로 대신 세례(대세)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자가정에 새로 태어난 자녀는 빠른 시일 내에 세례성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가 하루 속히 원죄(아기는 본죄가 없습니다)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총 중에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 인호, 세례명, 대부모

세례 받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표지인 인호(印號)가 새겨집니다.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는 세례, 견진, 성품의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하느님께서 그 성사를 받는 사람이 당신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하시는 것입니다.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는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짓는데 이는 새 사람이 되어 새 인생을 살겠다는 뜻이 있으며, 성인의 보호를 바라고 그 신심을 본받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세례 받은 사람을 이끌어줄 대부 대모를 정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참고**

## 오늘의 미사 · 부활 제3주일

|         |                                                 |
|---------|-------------------------------------------------|
| 【입당성가】  |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
| 【제1독서】  | 사도 3,13-15,17-19                                |
| 【화답송】   |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br>밝은 빛을 비추소서.<br>(또는 ◎ 알렐루야) |
| 【제2독서】  | 1요한 2,1-5ㄱ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 【봉헌성가】  |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        |                                                                                                |
|--------|------------------------------------------------------------------------------------------------|
| 【복음】   | 루카 24,35-48                                                                                    |
| 【영성체송】 |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br>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br>활하셨으니, 그의 이름으로 회<br>개와 죄의 용서를 모든 민족들<br>에게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
| 【성체성가】 | 171 오 거룩한 생명의 샘                                                                                |
| 【파견성가】 |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4월 27일 금요일은 (故) 김경식(보니파시오) 몬시뇰 2주기입니다.

## † 교구장 대주교님 교구설정 50주년 맞은 대만 타이중교구 방문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4월 14일(토) 자매교구인 대만 타이중(臺中,대중)교구 설정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4월 13일(금)부터 17일(화)까지 타이중교구를 방문하셨다.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타이중교구 교구장 수야 우원(마르티노) 주교와 만나 양 교구 간 교류 증진에 대해 환담하시고, 타이중교구

에 파견된 예수성심시녀회 소속 수녀들이 활동하고 있는 본당과 시설을 둘러보시고 격려하셨다. 타이중교구는 1962년 4월 16일 설정되었으며, 대구대교구와 1987년 11월 9일 자매결연을 하였다. 타이중교구는 자매결연을 하던 해인 1987년 두 차례 대구대교구를 방문하였으며, 작년인 2011년 대구대교구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방문단을 보내어 축하한 바 있다.



## † 금주의 주요 교구일정

- ▶ 2012년 4월 22일(일) 10:30, 성심복지의원 20주년 미사, 교구장 대주교님 주례
- ▶ 2012년 4월 27일(금) 17:00~28일(토), 2012년 교구 사회복지 국장 및 담당사제 모임 - 꾸르실료교육관

##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서

박성규 엘리지오



## 피정

### 대구바느섬도 창립 17주년 피정

일시: 4.26(목) 9:30  
장소: 삼덕성당  
강사: 남양성모성지 이상각 신부  
지도: 김준년(베드로) 신부  
문의: 임마콜라따의집, 427-7543

### 가족 수도생활체험 피정

기간: 1차 5.19(토)~20(일) 13:00~13:00  
<2차> 6.23~24 <3차> 9.15~16  
<4차> 10.6~7, 참가비: 4만5천 원  
장소: 왜관 피정의 집  
문의: (054)971-0722, 선착순 80명

### 작은예수회 2박3일 무료 치유평정

기간: 4.27(금)~29(일)  
장소: 가평작은예수마을(숙식제공)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앞 11:40  
문의: 박데레사, (016)646-0583

### 희망기도 만나절 피정(선착순 80명)

일시: 5.6(일) 13:00~17:30(미사 있음)  
장소: 달빛골 교육원 (삼성교회 옆)

지도: 최봉도 신부, 참가비: 1만 원  
문의: 이재천 바오로, (010)3532-2879

###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2박3일 피정

기간: 5.11(금)~13(일), 6.8(금)~10(일)  
장소: 왜관 성베네딕도 피정의집  
문의: (010)5613-1762 / (054)971-0722  
• 자세한 내용은 <http://innerheal.kr> 참조

## 모집 / 기타

### 빛떼제 음악제 초대

일시: 5.5(토) 18:00~21:00(저녁식사)  
대상: 청소년, 청년, 가족 모두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신청: (010)9056-9005

### 가톨릭 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일시: 매주 수요일 13:30~15:30  
대상: 성가에 관심 많으신 분  
내용: 발성법, 호흡법 등  
문의: 박아녜스, (010)5291-2919

### 40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2~8.12(3, 5주)  
•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대·일반: 6.24~8.5(6, 7주 장기)

주관: 마 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 대구가톨릭대학교 2012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4.30(월)~5.11(금)  
분야: 22개 전공, 공원자격증 발급  
•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 청년 성가대(Bene Te) 모집

첫모임: 5.3(매주 목) 20:00, 삼덕성당  
내용: 그레고리오 성가와 다성합창  
담당: 포교베네딕도수녀회 김후고 수녀  
문의: 313-3431 / (010)7151-2004

### 여름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일시: 7.23(월)~8.21(화), 4주간  
장소: 필리핀산아거스틴학교  
주관: 성아우구스티노수도회  
문의: (010)9204-1262  
[www.osakorea.or.kr](http://www.osakorea.or.kr)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http://www.holyfcac.or.kr)

## 미사 안내

|                      |                  |         |
|----------------------|------------------|---------|
|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4월 23일(월) 오전 11시 | 성동성당    |
|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4월 23일(월) 오전 11시 | 죽도성당    |
| 구미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 4월 23일(월) 오전 11시 | 도량성당    |
|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4월 23일(월) 오전 11시 | 계산주교좌성당 |
| 오순절평화의마를 후원회 미사      | 4월 23일(월) 오전 11시 | 수성성당    |
|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4월 24일(화) 오후 2시  | 계산주교좌성당 |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월례미사  | 4월 28일(토) 오전 11시 | 성모당     |
| 공소후원회 미사             | 4월 28일(토) 오전 11시 | 남산성당    |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http://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승현역 2번 출구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 연세 안과**  
**아이 라식**,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외래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와우이비인후과**  
수술 전문 | 중이염, 비염, 축농증  
코골이, 편도선 수술  
귀 전문클리닉, 보청기 상담, 장애진단  
원장/전문의 이 영 호(바오로)  
(전, 가톨릭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 1번 출구  
**☎ 654-2052** (서부정류장 내거리 LG전지 옆)

**월치과병원**  
D4M 카페 **닥초의 치과이야기**  
**Tel. 053)741-1100**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 3번 출구 농협 5층  
원장 신수용(루카), 조창식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JINSUNG** **진 성 건 축**  
Architects & Interior  
**건축사 · 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 시공 및 상담  
대표/건축사 성 호 근(다니엘)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

## 행사 / 모임

### 다문화 미사

일시: 5.6(일) 15:00, 계산성당  
주례: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  
주최: 가톨릭근로자회관

### 4월 예비 신학생 모임

일시: 4.29(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 2012년 성령쇄신 춘계대구대회

일시: 5.19(토) 10:00~18:00, 대상: 일반  
장소: 성김대건기념관(남산동 대신학원)  
강사: 김웅렬(토마스 아퀴나스)신부

### YHY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

마감: 4.30(월) 17:00 까지  
대상: 만13~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문의: 교구 청소년담당, 250-3066  
•홈페이지([www.jesusclub.or.kr](http://www.jesusclub.or.kr)) 참고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4.24(화) 14:00, 신암성당  
4.25(수) 10:00, 죽도성당  
4.25(수) 14:00, 성토마스성당  
문의: (02)3673-2525

## 교육 / 모집

### 지성인을 위한 신앙강좌

일시: 4.28(토) 10:00~12: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참가비: 5천원  
주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 있는가?, 마감: 27(금)

강사: 이경수(라파엘) 신부  
문의: 660-5105~6

### 수성성당 50주년 맞이 문화강좌

일시: 4.30(월) 저녁미사(19:30) 후  
장소: 수성성당, 강사: 이태수시인  
주제: 대구 가톨릭 문화예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상반기 부자녀캠프 신청

기간: 1차 5.12~13, 2차 5.26~27  
(중·고등 자녀)  
3차 6.9~10, 4차 6.23~24(초등 자녀)  
장소: 명곡 가톨릭스카우트교육원  
대상: 아버지와 자녀들  
문의: 교구 청소년담당, 250-3064

### 가톨릭 미용인회 성지순례

출발: 4.24(화) 9:00, 요안나미용학원  
순례장소: 마산 테라피스트 수녀원

### 관덕정 성지순례

1차: 4.30(월) 전주치명자산, 숲정이  
2차: 6.24(일) 보령 갈매목  
회비: 3만 원 (중식 포함)  
문의: 254-0151 / (010)4818-3080

### 22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안내

일시: 6.9(5주간 매주토) 15: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1층 대화합실  
대상: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신청마감: 6.1(금), 신청비: 15만 원  
문의: 641-5678

## 채용

### 성가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대상: 여자 2명(자격증 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문의: 성가요양원, (054)976-8122

### 가톨릭호출택시 직원 및 회원 모집

•채택근무 가능, 장애교우 환영  
문의: 김종배, (010)3940-7358

## 안내

###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조경(이레네), 홍승학, 노정희(마리아)

### 군위요원 버스운행 안내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월 1회 교구버스 정기운행을 실시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운행기간: 5.7(월)부터 ~ 6개월 간 한시 운행

운행일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09:00

출발장소: 교구청 대건출판사 앞 주차장, 운임료: 왕복 1인당 1만 원

매표기간: 운행일 전(前) 주 월~금요일, 44인 선착순

문의: 관리과 250-3003(전화예매 불가)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 운행을 취소할 수 있음(예약금 반환)

새하늘 새생명을 여는  
신자가정을 위한 **종합 횡간지**

월간 '빛'은 다양한 모임과 선교에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문의 (053)252-5392

**offtop** doctor's cosmetic®

이스라엘 사해 미네랄의 24시간 수분 보호막  
전문가가 처방한 건강한 보습제 **오프토피!!**

대표 손 민 정(루시아)  
[www.offtop.com](http://www.offtop.com)  
(053)526-0363~4

지하철 2호선 두류역 2번 출구 달성리부과 3층

**ORANGE MOTORS** 오렌지모터스  
동대구IC정비공장

판금/도장  
일반/보험/수리전문

각종오일 및 소모품 (교우님 특별우대)  
대표 이상훈(하상바로) **958-0009**

**리노류마내과**  
LINO RHEUMATOLOGY CLINIC

관절염 및 통증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류마티스 내과

원장 김 성 동(리노)  
[www.linoclinic.com](http://www.linoclinic.com) ☎248-6565  
범어네거리 범어롯데캐슬 상가 4층

**인공신장실**  
1호선 상인역 **수원내과**

첨단혈액투석여과기 25대 / 야간투석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053)642-7575

산적동 대우아파트 앞 / 대형전용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병실

**한글병원**  
한글병원 **한글병원**  
의학과 병행한 노성균(이우구스노)  
☑ **체코하세요!**  
☑ 위내시경 ☑ 항문(치질)수술  
☑ 대장내시경 ☑ 건강검진

[www.hangmun.com](http://www.hangmun.com) **959-7175**  
위·대장·항문 클리닉·건강검진·내시경·알집진

심내건축, 방수, 도장전문업체  
**유먼건설**  
(견적 무료상담)

가업으로 이어지는 40년 전통의 성실과 신뢰의 기업!  
건축공사, 인테리어공사, 일반 및 특수도장공사  
방수공사일체 전문시공업체

대표 홍 순 성(돈보스코)  
T:428-1060 F:428-1061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849번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 개인을 존중하는 교육문화  
○ 가톨릭 인간관, 사회관에 근거한 교육내용  
○ 실천을 지향하는 교육방식

교구청 내 가톨릭교육원 가동(3층)  
☎ 053)255-7222